



제 9호  
2023년 김포총회  
www.부안임씨밀직공파.com

# 扶安林氏金浦宗報



◎ 발행일 : 2024년 2월 2일 ◎ 발행인 : 임종철 010-2327-2974 ◎ 편집인 : 임종상 010-5343-3441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산재로 42-68

<중보 인사말>

## “참여(參與), 巡禮(순례), 交流(교류)”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우리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총회 활동이 좀더 활기차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지난 3년보다 더 대소사를 잘 치르게 되었고, 종인들의 만남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회장으로 감사드리고 경의를 드릴 가장 특징적인 것은 “참여” “순례” “교류”가 예년보다 더 활발하고도 의미있게 진행된 것입니다.

우선, 꼽아볼 것은 검단 마전동 가현산 서하공 묘역의 서하공(西河公) 휘(諱) 춘(椿)님, 휘(諱) 경세(敬世)님, 휘(諱) 숙(淑)님, 휘(諱) 대광(大光)님, 그리고 하운공 휘 재호님 묘소를 사초(莎草) 모시면서 많은 종인들께서 솔선수범 “참여” 해주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묘역이 오랜동안 세월의 흐름에 따라 훼손이 커서 후손들로서 부끄러움과 죄송함을 이루 말하기 어려웠었는데, 마침내 새로 개선하게 된 것은 큰 경사라 하겠습니다. 특히 선조님들의 묘비 비문을 여러 사료들을 근거로 바로잡게 된 것, 역시 보람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사에 앞장서서 애써주신 임원님들께 거듭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사초 이후 장마가 닥쳐와서 혹시나 잔디 유실이나 사태를 걱정했는데 미리미리 대비하여 무탈하게 넘길 수 있었고, 청년회원들께서 적극 “참여” 하여 선조들 묘역이 있는 가현산에서 단합대회를 갖고 잔디밭기 행사로 묘소들을 다듬어주신 열성에도 깊은 사의를 드립니다.

또한 개곡리 학사공(學士公) 휘 계정(繼楨)님의 부친으로 김포종중의 맨 위 어른이신 휘 득성(得成)님 제단을 새로 모시게 된 것도 후손들의 불손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부안임씨 관향 시조이신 문헌공(文憲公) 휘(諱) 계미(季美) 부안 연천재 춘제를 계기로 김포총회 종인들께서 순례단을 이루어 세종시, 부안을 “순례” 한 행사는 그 의미가 크고, 승조(崇祖)의 마음가짐을 실천한 일이었습니다. 순례단에 참여하신 종인들께서 제례복을 갖추고 세종시 임난수 장군님 독락정을 참배 알현하고 임씨가묘(林氏家廟) 사당에서 제례를 올렸고, 이어서 부안임씨 관향시조 휘 계미님 등 춘제에 직접 참례한 것은 매우 뜻깊은 “교류”의 기회였습니다.

이는 우리 부안임씨 전체의 단결~단합을 높이는 계기를 만든 것이며 판사공파, 전서공파, 밀직공파 상호간에 교류와 친목의 폭을 넓히는 전환점을 만든 것이라고 자평해도 좋을 것입니다. 동시에 매년 고흥에서, 부안에서, 세종시 등 여러 지역에서 서하공 세일제에 원행하셔서 참례하시는 노고에 대한 답례이기도 합니다. 2024년에도 순례단을 이루어 교류하고 참례하자는 중론이 있으니 앞으로 계속해서 순례와 교류의 기풍을 키워나가길 기대하게 됩니다.

서하공 세일제에 여성회원들께서 전년에 이어 헌공다례(獻供茶禮)를 올린 사례도 역시 새로운 시작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헌공다례는 다도박물관으로부터 교습을 받아 여성회원들께서 독자적으로 직접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앞

으로 주욱 계속해나갈 승조제례의 실천일 것입니다. 특별히 서하공 임춘님께서서 우리 민족문학에서 그 누구보다도 일찌감치 차에 관한 시(茶詩)를 쓰셔서 차(茶) 애호가들의 선망(羨望)을 받으시는 분인데, 그 당사자분께 차를 올리게 된 것은 우리 종중이 자부심을 갖고 만방에 널리 알려야 할 중요한 소임의 기본을 더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하 임춘 문학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묘역으로서만이 아니라 고려시대 문인으로서 우리 “코리아 문학의 대문인”이신 서하 임춘님을 선양하는 중심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미 교과서에 ‘국순전(麴醇傳)’이 게재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성씨가 다르더라도 그 문명(文名)을 배우고 있으니 앞으로 직접 현지를 견학하게 되면 좀더 깊이있게 공부하고 수학(修學)하는 공간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년에 [서하 임춘 문학제] 등 문학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서하 임춘님의 문학적 성취를 되새기고 널리 알리며, 문학사적 위상을 바로잡는 전환적인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재출간하는 <서하선생 임춘시집>은 우리 종인들이 두루 읽음으로써 선조의 문학적 위업(偉業)을 실감하게 되고, 우리 문학계에 임춘님의 작품들을 재독(再讀)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문학사가 새로 쓰이게 되는 단초를 열어갈 적절한 소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4년간 맡아온 회장 직책을 새로운 회장님께 인계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저와 함께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거듭 깊이깊이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개인 사정으로 좀더 회장 직책을 연임하기를 권고하셨던 종인 여러분들의 뜻에 순응하지 못하게 된 것을 깊이 사과드리며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회장 직책은 물러나더라도 종사에 계속 동참할 것이며, 특히 서하공 임춘님의 문학적 위업을 드높이는 선양사업(宣揚事業)들에 솔선하고자 합니다.

우리 종중의 “승조(崇祖), 개선(改善), 화평(和平)”을 위하여 우리 종회가 실행~실천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종중의 선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자산이신 “서하 임춘”님을 추념하고 선양하는 일은 여러 사업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가장 큰 중추사업(中樞事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능력이 부족하고 여건이 미비하여 시행하지 못했던 미완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새로운 회장님과 집행부, 종인 여러분들의 열성 어린 노력들이 모아져서 우리 종중이 진일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와 확신을 가지면서 먼 구스러움을 털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종중을 이끌어가실 새 회장님과 임원님들, 그리고 종인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과 행운,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총회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4년 2월 2일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총회 제 9대 회장 林 鍾 喆

### 그동안 총회 발전에 함께 고생하신 임원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부안임씨 밀직공파 총회 이사회 명단

직책	이름	전화번호	직책	이름	전화번호	직책	이름	전화번호
회 장	임 종 철	010-2327-2974	이 사	임 하 기	010-5338-0025	감 사(대한전선)	임 종 철	010-5340-4954
부 회장	임 종 훈	010-3792-2132	이 사	임 현 기	010-9000-6036	감 사	임 병 호	010-2739-7750
부 회장(중손)	임 성 희	010-8734-1405	이 사(건축사)	임 현 기	010-5669-0373	부안임씨 밀직공파김포총회 고문단		
집행위원장	임 종 광	010-7600-8082	이 사	임 응 기	010-3718-8224			
운영위원회 간사	임 종 상	010-5343-3441	이 사	임 명 환	010-5262-9726			
재무위원회 간사	임 한 기	010-6237-2978	이 사	임 종 수	010-2388-8840			
재산위원회 이사	임 종 찬	010-2877-1782	이 사	임 도 연	010-9553-9369			
홍보위원회 간사	임 선 기	010-2235-0278	이 사	임 정 연	010-2391-1394			
제례위원회 간사(겸직)	임 종 상	010-5343-3441	이 사	임 성 연	010-5244-6723			
이 사	임 용 혁	010-3718-6549	이 사	임 철 연	010-8596-5812			
이 사	임 용 복	010-5223-2824	이 사	임 경 기	010-5222-5512			
이 사	임 철 규	010-7103-3070	이 사	임 광 기	010-6221-5512			
이 사	임 철 기	010-3777-3411	이 사	임 동 연	010-9833-5400			
이 사	임 찬 기	010-9023-5693	이 사(여성회장)	장 영 숙	010-4784-4678	고 문	임 충 실	010-3396-3394
						고 문	임 종 호	010-4734-8002
						고 문	임 종 학	010-8387-1477
						고 문	임 종 근	010-7600-8082
						고 문	임 병 일	010-5470-0163
						고 문	임 병 운	010-3044-3463
						고 문	임 중 문	010-5270-6839
						고 문	임 종 선	010-7166-3371
						고 문	임 문 기	010-8519-1773

# 2023년 김포종중 업무 및 활동 사항

## <2022년 결산 총회>

2022년 감사보고, 결산보고, 2023년 사업계획을 승인. 숙원 사업인 가현산 선영 서하공 묘역을 사초하기로 의결했다. 앞으로 진행 될 세일제에는 기존 홀기의 내용에(철갱진다撒糞進茶 하시다기下匙茶器) 라는 내용있고 옛부터 차를 올렸다는 근거가 있다. 또한 서하공 문집내용 중 차에 관한 시와 내용이 많기에 현공다례는 올바른 문화와 예식이므로, 세일제에서 여성회 손부(孫婦)들이 차를 올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사회>

총회 현안 사항 진행과 “서하 임춘선생 시집”발간 진행보고, 서하 문학제를 거행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또한 서하공 묘역 사초의 범위와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가현산 묘역에서 이사회 실시하였습니다



## <자문회의>

취득성조고 제단 개곡리선영 상단에 설치.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종회를 법인으로 전환 진행. 정관 확정. 개곡리사택 임대. 개곡리 사무실 신설, 영농 경영체 등록. 서하공 세일제에 현공다례 실시. 유존각 위패 교의 설치등을 설명 하고 의견 청취 후 동의받음.



## <임원 교육>

종중에 관한 알아야 할 지식과 역사 미래 지향적 지표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장소를 호텔 세미나실에서 프리젠테이션으로 교육겸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 <청년회>

친목과 단합을 위한 행사로 서하공 묘역에서 선조와 역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묘역 주변의 잡풀 제거와 청소를하고 가현산을 등반하였습니다.



# 2023년 김포종중 업무 및 활동 사항

## <여성회>

세일제 행사에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 손부(孫婦)들이 사단법인 예명원에서 다례교육을 수료 후 우리종중 최초로 여성회에서 헌공다례를 봉행하였습니다.



## <유적답사 워크숍>

우리 종회에서 23년 3월 17~18일 선조 유적 답사 워크숍으로 평택시 팽성읍 우리나라 임(林)씨의 시조 충절공 휘 팔급(八及)세거지를 찾아 참배하고 팽성공원을 답사하였습니다. 세종시 전서공파 사무실에서 환담을 나누고 임씨가 묘에서 제례복으로 환복하고 간단한 제물과 술을 올려 휘 난수조고님께 알현 참배하였습니다. 또 승모각 조상님 제실에 술을 올려 알현한 후 헌방회장님의 종인분들의 안내로 유적지와 천연기념물인 임난수장군께서 직접 심으신 은행나무 한쌍을 둘러보았습니다. 부안에서 1박을 하고 판사공파 제실인 연천제에서 부안 향교에서 주관하는 춘제(휘 계미, 휘 춘, 휘 목 세분의 위패를 모심)에 참관하고 참석하신 분들과 환담을 나누며 뜻있는 시간을 보내고 변산반도를 지나 귀향했습니다.



## 2023년 김포종중 업무 및 활동 사항

### 가현산 서하공묘역 사초

서하공 묘소의 둘레석이 벌어지고 봉분에는 잡초와 봉토가 많이 훼손되었고, 묘소 제단 아래 후손들이 부복 재배하는 곳이 너무 비탈져서 서있기가 불편하였습니다. 흙을 채워 수평을 맞추었고, 휘 경세, 휘 숙, 휘 대광 조고의 제단이 왜소하고 장소가 좁아 새로이 조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묘역을 정비하고 안내판을 세웠으며 등산객을 위한 등산로를 묘역 밖으로 길을 만들고 야자매트를 깔아 묘역을 안전하게 보존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화보로 보는 2020년 ~ 2023년 종회 활동

## 〈사초 비문〉

### 휘 경세 諱 敬世

高麗匡靖大夫僉議贊成事上護軍  
判民部事 扶安 諱 敬世 祭壇  
配 貞夫人 金浦鄭氏 祔

검단면 가현산 선영의 서하공 묘소 아래 좌측의 높은 제단은 서하공의 차남 휘 경세의 제단이다.  
광정대부 첨의찬성사 상호군 판민부사를 역임하시고 70세가 넘어 왕에게 치사를 청하여 벼슬에서 물러나셨다 세수는 93세이다.  
배위는 군부인 김포정씨로 판서 승오의 따님이다.  
묘소는 개성 장단계이나 실전하였다. 백씨는 충세이고 계씨는 정세이다.  
아들 장남은 숙이고 차남은 택이다.

### 휘 숙 諱 淑

高麗門下侍中平章事純誠輔節 佐理功臣  
保安伯 金紫光祿大夫 守司空上柱國  
諱 恭惠公 扶安林公 諱 淑 祭壇  
配 辰韓國夫人 江陵劉氏 祔

문하시중평장사 순성보절좌리공신 보안백 금자광록대부 수사공상주국 이다 시호는 공혜공에 봉작되었다.  
배 진한국부인 강릉유씨 이시다.  
고려사에 충숙왕 10년 서기1323년 계해 정월에 제주만호로 부임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1331년 충숙왕이 왕위를 아들 충혜왕에게 양위하고 원나라에 가 있다가 1333년 다시 돌아와 왕으로 재위하려 하자 부자간에 왕위 쟁탈전이 일어났는데 이때 왕군은 충순군소의 남쪽 다리 아래에 적부청을 옮겨 놓고 공주를 살해하려 하자 공주를 만호 임숙의 집에 옮겨 보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충숙왕 재위 시 공격이 있어 순성좌리공신 문하시중평장사역임 후 수사공상주국 보안백에봉작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배위는 진한국부인 강릉유씨 정현공 복화의 따님이다.  
숙공께서는 지히 회재 대광 난수를 낳으셨으나 일남과 이남은 자손이 없다.  
묘소는 개성 송도 고운사 법당 동변 원외 남향에 있으며 묘소아래 신도비가 있다.

### 휘 대광 諱 大光

高麗密直使官推城翊衛輔節功臣  
三重大匡輔國崇祿大夫  
保安君 扶安林公 諱 大光 祭壇  
配 郡夫人 遂安李氏 祔

부안임씨 10세조 휘 대광은 고려밀직사관이요 추성익위보절공신 삼중대광 보국승록대부보안군 이다.  
부안임씨는 크게 3파파인데 밀직공파 전서공파 판사공파이고 공께서는 밀직공파의 파시조派始祖이시다.  
좌리공신 보안백 시 공혜공 휘 숙의 셋째 아드님이다.  
고려사 세가에 따르면 공민왕恭愍王15년 1366년4월에 신년축하사절의 부사 임대광이 원나라를 방문 후 돌아오다 요양遼陽땅에 이르렀을때 도적들에 포위되어 원 황제가 준 옷과 술 서신등 선물을 빼앗기자 고려 사신으로 원나라 방문 후 받은 선물로 고려왕에게 전할 물건과 서찰이라 말하고 설득하자 도적

들은 고려왕의 얼굴을 보아 놓아주겠다며 선물도 돌려주어 무사히 돌아왔다.  
配位(배위)는 郡夫人遂安李氏 군부인수안이씨로 父는 三重大匡삼중대광遂安君수안군 諱휘 麻휴의 二女(2녀)이시다.  
아드님은 9형제를 두시어 변연하였으나 국토분단으로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7째아들 휘 득충은 충의열전에 고려말 병마절제사겸서북도순문사를역임했고 후손들은 고흥 낙안을 세거지로 번성하였다. 9째아들 휘 득득성으로 中訓大夫중훈대부리사監正사재감정이고 장남 계정휘 繼禎은 翰林學士한림학사로 김포군 통진을 세거지로 번성하였다. 묘지는 개성 장단이나 분단으로 실전되었다.

## 〈제실의 위패 봉안〉

사례편람과 학식인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기존의 대리석 위패를, 밤나무 재질로 명장인의 작품으로 규격과 격식에 맞춰 수작업으로 만들어 교의에 안치하였습니다.



## 〈현판〉

한국서도예술협회 배경석회장의 글씨를 찬(撰)하여 임씨가묘와 유존각 현판을 나무에 음각하여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위패의 신위 글도 같이 찬(撰)하였습니다.



# 先祖 歲一祭 案内

- 忠節公 諱 八及 (음) 3월 3일 충남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 文憲公 諱 季美 (양) 3월 3째주 토요일 전북 부안군 보안면 상림리(연천제)
- 西河公 諱 椿 (음)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면 마전리
- 諱 敬世 (음)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면 마전리
- 恭惠公 諱 淑 (음)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면 마전리

- 判事公 諱 澤 (양) 3월 3째주 토요일 전북 부안군 보안면 상림리(연천제)
- 密直公 諱 大光 (음)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면 마전리
- 典書公 諱 蘭秀 (음) 9월 9일 충남 연기군 동면 불파미
- 兵馬節制事 諱 得忠 (음) 10월 13일 전남 고흥군
- 學士公 諱 繼禎 (음) 10월 10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독골

## 화보로 보는 2020년 ~ 2023년 종회 활동

### 〈개곡리 선영 사초〉

개곡리 선영의 묘소가 봉분이 많이 훼손되고 비석과 석물이 넘어지고 석물들이 무너져 새로이 사초하고 묘역을 단장하였습니다.



### 〈유존각 주변정화〉

유존각 주변의 수목의 전지작업과 돌레에 이팝나무를 식목하고 야외 벤치를 설치하였습니다.



### 〈납골당〉

전등, 제습기, 환풍기등을 교체했으며 불필요한 보관물품을 수거하고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납골당 앞에 제실을 만들고, 옆에 수도 시설과 정자를 세웠습니다.



### 〈농지전환 영농〉

사택앞 2필지와 추모공원 아래 2필지의 밭이(원래는 논이었으나 매립되어 있었음) 토질이 단단하여 별로 효용이 없기에 다시 논으로 만들어 영농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 〈추모공원〉

추모공원을 정비하고 별초를 연 2회로 진행하고 있으며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쉼터로 정자를 만들었습니다, 유존각에서 올라가는 계단과 도로를 만들어 야자 매트 깔아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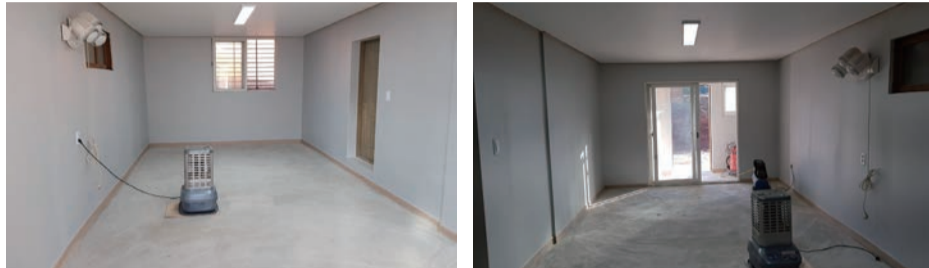
### 〈묘지기 관리인 해촉〉

개곡리 선영 관리인에게 사택과 전 답 4,000여평을 제공하고, 시제 제물과 선영 연 1회 별초를 의뢰했던 것을 관리가 불량하여 해촉하고, 종중에서 직접 영농을 하며 제물준비와 연 2회 별초 관리를하고 사택은 임대를 놓았습니다. 또한 가현산 서하공묘역 관리인도 관리 해지하여 1층은 임대, 2층은 우리종회 제실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화보로 보는 2020년 ~ 2023년 종회 활동

## <종회 사무소>

마송 회관의 사무실이 사용 할 수 없어 개곡리 사택 일부와 마전동 사택 2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현산 선영관리인 사택 2층을 사무실로 개조하였습니다.



## <로고와 근조기>

우리 김포종회를 상징하는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로고)



(근조기)

## <유존각 세일제>



## <휘 득성조고 제단 봉영>

김포 종회에서 모시는 선조님은 가현산 선영에 부안임씨 제7세 서하공부터 10세 밀직공까지이고, 개곡리 선영은 12세 학사공에서 18세조고남까지 묘지와 제단을 모시고 있습니다. 11세 휘 득성 조고님의 제단만이 없기에 개곡리 선영 윗터에 새로이 제단을 봉영하였습니다.

### 휘 득성조고 비문 (諱 得成 祖考 碑文)

“扶安林氏 11代祖 諱 得成 祖考님!  
오랜 歲月(세월) 송구하옵게 墳墓(분묘)를 지키지 못하여,  
이제 이곳에 神主(신주)를 모시고 祭壇(제단)을 마련하였습니다.  
바라옵건대 尊靈(존영)께서 이곳에 의지하시어 後孫(후손)들의 精誠(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공은 밀직사관 휘 대광조고의 아홉 아들 중 아홉째로 생몰 연대는 알려지지 않으나 중훈대부 사재감정을 역임하셨고, 고려말에 돌아가셔서 개성 주변에 묘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의 아들은 휘 계정으로 고려 한림학사로 봉직하다, 이성계가 고려를 멸하고 조선 건국하자 불사이군의 충심으로 개경을 떠나 통진에 입향(630년전)하여 우리 후손들의 세거지가 되었습니다.

공의 후손들은 이곳에서 번창하여 김포 밀직공파로 불리웁고, 형인 일곱째 아들 휘 득충조고께서는 서북도 병마절제사로 전남 고흥에 터전을 잡아 후손들이 번창하여 고흥 밀직공파로 불리웁니다.



## <가현산 제실>

가현산 사택 2층을 수리하여 흑한의 기온이나 곳은 날씨가 대비하여 사택 2층에 제단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년 세일제 날씨는 비가 많이 내려 새로 만든 제실에서 차질없이 제향을 올렸습니다.



## <“서하선생 임춘시집”발간>

우리나라 한시총서 중에 “서하선생 임춘시집”을 발간한 민속원과 (김진영교수, 안병훈교수 역주) 협의하여 발간주체를 민속원 부안임씨밀직공파김포종회로하여 문고판으로 1,0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우리 종인과 관계인들에게 배포 예정입니다.



<취임사>

# 빛나는 선대의 업적과 음덕을 계승·발전 시켜 나가자

## - 제10대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 종회 임종광 회장 취임 인사 -



회장 林鍾光 (30孫)

존경하옵는 종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 종회 회장으로 취임한 임종광(林鍾光·30世)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를 빛나는 문중의 종회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간 명문가인 우리 종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용성(容成)→용화(容華)→인기(仁基)→중기(中基)→용득(容得)→종호(鍾瑚)→종철(鍾喆)회장님의 탁월하신 경륜과 훌륭하신 인품으로 종회가 반석 위에 오를 수 있었던 많은 업적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전임 임종철회장님의 숭조(崇祖)·개선(改善)·화평(和平)의 3대 정신을 바탕으로 선영

을 잘 관리하고 정성스런 제를 올리고 서하공(西河公)임춘(林椿)조고님의 정신을 깨우는 많은 노력과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그간의 노고에 고맙고 감사하며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37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김포 종회 청년회장과 집행위원장으로 종사에 참여해 왔고 전임 회장님들께서 추진하신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종원들이 하나로 뭉쳐 조상을 숭배하고 후손에게 예의와 충효를 가르치는 많은 일들을 지켜보며 종회를 끌어갈 방법을 배웠습니다.저에게 있어 이러한 과정들이 앞으로 종회와 함께 할 동력과 자산이 될 것입니다.

4만년이라는 인류의 역사 만큼 원시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최첨단 지식정보와 초정밀 AI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문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발전과 성장을 구가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굴레속에 뿌리가 없는 생명이 없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견고하고 탄탄하게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은 조상이 있기에 내가 있는 것으로 오늘에 이어져 오는 전통과 뿌리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우리 부안 임씨의 뿌리는 3,600여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중입니다. 중국 삼황오제(三皇五帝)중 오제의 첫 번째 임금인 황제(皇帝)의 후손으로 세계 최초의 국가인 은(殷)나라 왕조(기원전 1,600여년)의 가문으로 왕자인 비간공(比干公)을 태시조로 모시고 그의 아들 임견(林堅)을 득성 임씨의 시조로 삼고 있습니다. 당나라 한림학자 임팔급(林八及)선조님이 신라때 평택 평성으로 동도하시어 한국 임씨의 도시조가 되시었고, 그의 후손이 현재 82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의 7세손인 휘(諱) 계미(季美)조고님을 부안임씨 본관(本貫)으로 하는 밀직공파(密直公派),전서공파(典書公派),판사공파(判事公派)의 인구가 7만6천여명으로 조사되어 있어 놀라운 발전과 성공을 이룬 성씨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임씨 가문은 고려 중엽에 무신란(武臣亂)에 화를 입어 서하공(西河公) 할아버님을 비롯하여 조상님들이 박해를 당하였으나 굳은 절개와 선비정신으로 죽림고회를 만들어 많은 문장을 남기었으며 870여년이 지난 현재에 고전문학의 대표적인 인물로 교과서를 통하여 학생들이 배우고 일반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박해와 고난속에서도 조상님들의 빛나는 업적과 정신을 후대에 까지 만만대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지속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우리는 유구한 가문의 역사를 선대와 후손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다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관직에 진출하여 세속정치에 휩쓸리기 보다는 초야에서 자연을 벗 삼

아 살아온 선비정신은 조상님들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됩니다. 농경사회에서 농사에 집중해 오신 우리 임씨 가문의 기질이라면 기질이겠는데 그 기질이 우리 임씨 종친들이 각계 각층에서 자기 맡은바 소임에 충실하게 하는 이유가 아닐까 되짚어 보게 되기도 합니다. 과거는 현재의 아버지, 현재는 미래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올 꿈은 선비정신과 책임의식을 잘 계승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해야 할 도리인 것이며, 현재 소임에 충실함으로써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미래 세대를 양성해 나가는 것 또한 우리의 책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나는 선대의 업적과 음덕을 계승·발전 시켜 나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종회의 앞날이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참여정신에 있다고 봅니다. 몇해 전부터 종사를 이끌어 가는 구성원들이 40대부터 70대초에 이르기까지 젊고 유능한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구성원별로 분과를 배정해 각자의 임무를 맡아 종사를 진행하면서 혼연일체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해 오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틀 위에서 저는 앞으로 부안임씨 종회가 조상을 진정성 있게 잘 모시는 일에서부터 조상의 얼과 정신을 후대에 이르기까지 화합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상이 같은 한 집안의 구성원은 꽃이 한 나무에서 피어나서 비록 일천 가지 일만 잎이 되더라도 모든 본 뿌리의 굳고 깊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종원여러분!!

시대는 세대를 낳고 세대는 시대가 만듭니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기성세대라 일컫는 연명층있는 세대와 그 후손들인 젊은 세대가 공존하며 우리는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자라 어른이 되는 과정이지만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역사 의식을 심어주고 조상의 전설같은 뿌리를 일깨워 주는 일은 기성세대인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후세들은 조상님들의 애환과 고통을 잘 모릅니다. 혹여 안다 해도 이해하기 힘든 요소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조상님들은 긴 세월동안 이 어운 나라 잃은 서러움 속에서 그 험한 세상을 이겨내고 오늘날 이처럼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온 기틀의 과정을 우리 후손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연히 세월이 흐르다보니 그냥 이루어진 우리의 삶이 아닌 우리의 조상님들이 가난과 고통과 애환이 배어있는 선물이라 느껴야 합니다. 물이 위에서 흐르는 순리가 조상님으로부터 오늘의 젊의 후세가 이어져 오는 과정과 동일시 되어야함을 알게 해야 하며 우리가 조상님들의 정신과 숭고한 인고의 아픔을 잊지 말고 계승 발전시켜 가는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김포 종회는 미래 지향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저는 “참된 예의와 조상에 대한 숭모 정신으로 종인들 간에 위의와 소통이 잘 되도록 하겠으며, 종인들과 같이 훌륭한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변화된 시대적 현실을 감안해 김포종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면된다. 할 수 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못 할일 없을 것입니다.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 종회의 새로운 임원진 모두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많은 일들이 분명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이익이 아닌 조상을 숭모하고 전통과 윤리를 계승 발전시켜 후대에 연결하는 것이 시대적인 과제이며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최대보다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편달을 주시기 바라며,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4년 ~ 2027년 합심하여 우리 종회를 발전시킬 부안임씨밀직공파김포종회 이사회 명단

직책	이름	전화번호
회장	임종광	010-7600-8082
수석부회장	임종상	010-5343-3441
부회장	임한기	010-6237-2978
부회장(종손)	임성희	010-8734-1405
운영위원회간사	임선기	010-2235-0278
재무위원회간사	임정연	010-2391-1394
재산위원회간사	임종찬	010-2877-1782
홍보위원회간사	임명환	010-5262-9726
제례위원회간사(겸직)	임종상	010-5343-3441
이사	임용복	010-5223-2824
이사	임용립	010-8894-0188
이사	임철규	010-7103-3070
이사	임철기	010-3777-3411
이사	임찬기	010-9023-5693
이사	임하기	010-5338-0025

### 부안임씨 밀직공파김포종회 고문단

직책	이름	전화번호
이사	임덕기	010-5322-8871
이사	임종춘	010-5269-6610
이사	임현기	010-5669-0373
이사	임응기	010-3718-8224
이사	임종수	010-2388-8840
이사	임철연	010-8596-5812
이사	임경기	010-5222-5512
이사	임광기	010-6221-5512
이사	임성연	010-5244-6723
이사	임태연	010-2778-1161
이사	임동연	010-9833-5400
이사(여성회장)	장영숙	010-4784-4678
감사	임병호	010-2739-7750
감사	임현기	010-9000-6036

직책	이름	전화번호
문장(겸직)	임병호	010-2739-7750
명예회장	임종철	010-2327-2974
고문	임종호	010-4734-8002
고문	임종학	010-8387-1477
고문	임종근	010-7600-8082
고문	임병일	010-5470-0163
고문	임병운	010-3044-3463
고문	임종문	010-5270-6839
고문	임종선	010-7166-3371
고문	임문기	010-8519-1773
고문	임충실	010-3396-3394
고문	임종훈	010-3792-2132
고문(대한전선)	임종철	010-5340-4954
고문	임용혁	010-3718-6549